

홍콩 레논 벽과 포스트잇, 그리고 정동정치*

— 홍콩 우산혁명과 송환법 반대시위를 중심으로

윤영도**

〈目 次〉

1. 서론
2. 레논 벽의 기원: 냉전기 민중의 공론과 공감의 장
3. 정동적 매개로서의 포스트잇과 홍콩 레논 벽
 - 1) 홍콩 레논 벽의 탄생과 발전
 - 2) 뉴(?)미디어로서의 포스트잇
 - 3) O2O 레논 벽과 정동정치 경합의 장
4. 결론

1. 서론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홍콩에게 보장되었던 50년간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한 약속기간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2년이 되면 정확히 절반을 넘기게 될 ‘일국양제’라는 과도기적 기간은 과연 순조롭게 하나의 사회적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최근 국제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홍콩의 소식들을 바라보다 보면 사실상 거의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도주 범죄인 및 형사 사무 상호 법률협조법 (수정) 조례 초안’(이하 송환법)¹⁾의 입법화를 강행한 홍콩 정부에 반대하여 송환법 철회를 주장하며 시작되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 HK+ 사업(과제번호 2018S1A6A3A01080743)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었던 송환법 반대시위는 최초로 시작된 3월 31일부터는 반년, 그리고 본격화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6월 9일로부터는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되고 있다. 약 2달 반 정도 지속되었다가 결국 종결되었던 2014년의 우산혁명 때보다 두세 배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위의 범위나 경찰과의 충돌 강도 역시 우산혁명 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진압 경찰의 권총에 의한 시위 중고등학생들의 연이은 피격 사건이나 체포된 시위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폭로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애초에 이러한 대규모 시위와 격렬한 갈등의 배경에는 1997년 반환 당시 보장하기로 약속되었던 ‘양제’라는 원칙이 중국과 홍콩정부 및 건제파(建制派)²⁾에 의한 ‘일국’ 원칙에 대한 강조 속에서 점차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다. 2014년 우산혁명이 2017년도에 시행될 행정장관 선거가 열리는 직선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임후보자를 중국 정부가 걸러낼 수

- 1) 이 법안의 공식명칭은 ‘도주 범죄인 및 형사 사무 상호 법률협조법례 (수정) 조례 초안 (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法例(修訂)條例草案; Fugitive Offender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Legislation (Amendment) Bill)’이지만, 그 속에 내포된 내용이나 함의에 대한 강조점들을 달리한 ‘도주 범죄인 조례(逃犯條例)’, ‘인도 조례(引渡條例)’, ‘중국 송환 조례(送中條例)’, ‘송환법(extradition bill)’ 등과 같은 속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홍콩에서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시키고자 하는 중국/홍콩정부의 숨은 의도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반대 시위를 ‘反送中’시위로 지칭하는데, 본문에서는 원래 법안명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홍콩에서 주로 사용되는 속칭을 반영하여 ‘송환법’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 2) 홍콩 내 정치파벌의 분류 상, 건제파는 소위 ‘친중파(親中派)’, ‘친공산당파(親共派)’, ‘친베이징파(pro-beijing camp)’, 혹은 ‘보황파(保皇黨)’로 불리기도 하는 정치 진영 및 정치세력을 가리킨다. 그 안에는 영국 식민지 시기부터 친중 친공산당 활동을 펼쳐왔던 인사들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본가들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홍콩정부 및 입법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홍콩의 집권세력을 말한다. 정치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반중(反中) 정치진영이라 할 수 있는 ‘범민주파(泛民主派; Pro-democracy camp)’에는 비교적 온건한 민주당(民主黨), 공민당(公民黨) 이외에도, 자치파(自治派)나 자결파(自決派)와 같이 홍콩 본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본토파(本土派),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민족당(香港民族黨)과 같은 ‘홍콩독립파(港獨派)’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포진해 있다. ([https://zh.wikipedia.org/wiki/建制派_\(香港\)](https://zh.wikipedia.org/wiki/建制派_(香港)), <https://zh.wikipedia.org/wiki/泛民主派> 참조)

있도록 만들어놓은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한다면,³⁾ 2019년 송환법 반대시위는 새로운 송환법 조례의 수정이 반중 인사들에 대한 중국 송환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⁴⁾

이처럼 갈수록 격해져가는 중국과 홍콩 사이의 갈등의 배경에는 ‘양제’라는 시스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리적 충돌이 놓여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뿌리 깊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강력한 정동정치(politics of affect)의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찰력의 과잉 폭력 진압이 갈수록 시위대를 격분시키고 더 크고 격렬한 시위의 확산을 가져왔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위대의 연대감이 감정적인 고조 이후로도 수그러지지 않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동적인 실천과 문화적 운동을 통한 정동정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수미(Brian Massumi)와 같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정동정치는 사실 분노의 충돌이나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on) 혹은 대립(antagonism)과 같은 문제만으로, 혹은 의식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동원(mobilization)’의 문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층위와 관련이 있다. 감정은 정동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정동의 이주 부분적인 표현”일 뿐이며, “기억들 중에서 제한된 선택만을 이끌어낼 뿐”, “잠재태들의 가상적 공존”이라 할 수 있는 정동을 포괄할 수는 없다. 마수미는 정동이 하나의 주체 안에 있는 주관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라는 것

3)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17년 홍콩 특별행정 장관 보통선거 문제 및 2016년 입법회 선출 방법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香港特別行政區行政長官普選問題和2016年立法會產生辦法的決定)>의 내용은 애초에 범민주파가 기대했던 보통선거(普選)방식과는 달리 행정장관 후보자를 1,200명에 달하는 후보자 추천위원회(提名委員會)에서 과반수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기존의 친중적인 건제파에게 유리한 간접선거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8.31결정에는 범민주당파가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던 입법회 의원 가운데 직능대표(주로 건제파로 구성됨)가 유지됨에 따라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고 이는 결국 우산혁명이라는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4)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홍콩의 민간인권전선은 송환법을 겨냥한 ‘악법 철회’ 이외에 ‘폭동 규정 및 검찰 기소의 철회’, ‘진정한 보통선거(행정장관/입법회의원) 실시(雙真普選)’의 실현을 시위의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2014년 우산혁명에서 이루지 못한 진정한 직선제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우산혁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 그 정동 안에 있으며, 정동은 그 “관계의 장에서 느껴지는 질”이라고 본다.⁵⁾ 또한 그는 정동하고 정동하기는 세계로의 열림, 즉 개방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동은 “항상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미디어 역할의 증대와 함께, 권력의 합법화에 있어서 정동적인 경로의 작용이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⁶⁾

20세기 상반기를 지배했던 파시즘이나 인종주의, 그리고 하반기를 지배했던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충돌과 대립은 사실상 인간성을 상실한 근대 이성중심주의적 거시정치와 이를 악용하여 하나의 극단적 감정의 충돌을 조장한 선동정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탈근대의 시대적 맥락의 변화와 함께, 욕망과 자본의 지상명령에 충실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저항하는 점령운동 청년세대의 달라진 운동 양상은 기존의 전위당과 같은 조직 중심의 상명하달식 리더쉽이나 동원이 아닌 새로운 창의적이며 정동적인 운동 및 실천 양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세대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정동정치가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들이기도 하다.

최근 홍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실천들 역시 이러한 정동정치의 다양한 측면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홍콩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 Civil Human Rights Front, 약칭 ‘CHRF’)의 부의장 가운데 한 명인 왕익모(黃奕武: Wong Yik Mo)는 이번 시위가 기존의 우산혁명과 유사하면서도 일부 달라진 지점들을 지적하면서 최근에 자신들이 구사하는 주요한 운동 방식들의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다.⁷⁾ 최근 경찰들의 강경 진압 등으로 인해 갈수록 격렬해지고 폭력화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문화적인 측면들의 비중이 다소 약해지기도 하고 그에 대한 강조가 다소 무색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홍콩 민주파들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이들이 구사

5)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정치』(갈무리, 2018) 26-27쪽, 187쪽 참조.

6)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정치』(갈무리, 2018) 13쪽, 61쪽 참조.

7) 왕익모, “홍콩 민간인권전선 부의장 WONG Yik-Mo (黃奕武, 民間人權陣線 副召集人)” 콜로키움 자료, 서울대동아문화연구소, 2019.7.16.

하는 문화적인 운동방식들은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

왕익모가 강조한 이소룡의 'Be water'라는 말로 대변되는 문화적 운동방식 중 하나는 텔레그램이나 Facebook, Youtube와 같은 온라인 SNS와 뉴미디어이다. 우산혁명 때부터 이미 두드러진 시위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한 청년층(중고등학생을 포함한)이 기존의 거대담론이나 단일한 정치지향에 이끌려가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면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의 시위 주동단체에 의한 상명하달식 의사전달 체계가 아닌 SNS라는 상호평등한 방식의 의사소통 체계를 이용하여 집회나 시위를 소집하고 집단행동 방식이나 해산 방식을 즉시 결정하는 형태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독특하게 부각되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운동방식 중 하나는 바로 '레논 벽(連儂牆; Lennon Wal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포스트잇(post-it)으로 장식된 시민게시판 운동이다. 앞서 언급한 SNS 및 뉴미디어의 활용은 이번 홍콩 시위에서만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나 여타 다른 지역의 운동방식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21세기 시민사회 운동에서의 공통된 변화 양상이라고 한다면, 레논 벽의 경우는 다소 최근 홍콩 시위에서 새롭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라 여겨진다.

애초 2014년 우산혁명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번 시위에서는 더욱 확산되면서 시위대의 중요한 문화적 실천 중 하나가 된 레논 벽이 지니는 상징성이나 홍콩인들이 느끼는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다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South China Morning Post(이하 SCMP)와 같은 홍콩의 미디어에서는 종종 다뤄지지만 국내에서는 그리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고, 더욱이 학계에서는 간단한 언급 이외에 별다른 연구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⁸⁾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형의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송환법 시위에 대한 문제보다

8) 백원담의 「인터 코리아, 인터 차이나, 인터 아시아」(『황해문화』, 2019)이나 장정아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황해문화』, 2016)에서는 홍콩 우산혁명이나 송환법 반대시위에 대해 소개하면서 '레논 벽'이라는 현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이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번 홍콩시위 자체가 최근의 일이고 또한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는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레논 벽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이를 정동정치의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른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정동정치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고민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 레논 벽 현상이 과연 무엇이고 이번 최근 홍콩 시위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들은 무엇인지, 그 역사적 계보와 시대적 맥락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문화적 운동방식이 최근의 변화한 사회적 지형 변화 속에서 지니는 새로운 미디어적 역할과 그 정동정치적 함의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레논 벽의 기원: 냉전기 민중의 공론과 공감의 장

벽에 무언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펼치는 행위의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면 멀게는 선사시기 인류의 동굴벽화에서부터 가깝게는 대자보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벽에 무언가를 그리거나 쓰거나 붙여왔다. 그리고 종이가 발명된 이래로 왕의 교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게첩(揭帖)’, ‘방문(榜文)’이나 포고문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근대로 넘어와 상업적인 광고물이나 포스터 같은 것들도 그런 계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대적 정치적 운동의 형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대자보라 하겠다. 문화대혁명 자체가 대자보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대자보로 끝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⁹⁾ 이처럼 대자보

9) 애초에 대자보는 강서 소비에트에서부터 정치적 선전이나 교육을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정적을 비판하거나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방법으로 전환되었고, 문화대혁명으로 접어들면서 상호 비판과 경쟁의 수단으로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시작과 끝 역시 대자보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은 일반적으로 1966년 5월 공산당 중앙차원에서 마오쩌둥에 의한 ‘5.7지시’나 소위 ‘5.16통지’로 불리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통지(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通知)’ 같은 것들이 그 기점으로 논의되기는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본격적인 운동은 바로 5월 25일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철학과 강사였던 네위안즈(聶元梓)가 베이징대학 당위원회와 베이징 시위원회를 비판한 대자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진

가 것처럼 중국 전역을 휩쓴 중요한 정치운동의 방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벽이라는 공간 자체가 오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고, 또한 그 위에 붙여진 대자보가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공론장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신문이나 출판 같은 활자매체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 대자보는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우면서도 효과적이고 유용한 미디어인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대자보는 1980년대 한국의 대학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치실천 내지는 운동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것처럼 활발했던 대자보문화도 결국 중국 내에서 사실상 철폐를 맞고 사라지고 만다. 민중에게 있어서 자유롭고 손쉬운 미디어라는 대자보의 장점이 역으로 정부나 통치세력의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미디어라는 단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주로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하지 않고서 이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집단이나 지배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공론적 기능을 지닌 미디어가 대자보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수의 민중이 동참할 경우 이를 검열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화대혁명 종결 당시 그 대자보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덩샤오핑의 손에 의해 대자보문화는 결국 중국 사회에서 사라지게 된다.¹⁰⁾

덩샤오핑의 집권 무렵부터 이후 대자보문화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된 천안문사건이 일어나던 무렵까지,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되고 있던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는 반체제운동 진영의 상징물인 레논 벽이 등장

다. 그리고 “1973년 광둥(廣東) 지역에서 등장한, 일명 ‘리이저 대자보(李一哲大字報)’라는 불리게 되는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에 관하여(關於社會主義的民主與法制)’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문화대혁명의 임계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점이나(리이저의 대자보에 관해서는 피경훈, 『혁명의 기표와 기의 — ‘리이저 대자보(李一哲大字報)’와 시대전환의 논리에 관한 고찰』 참조.), 1976년 4월 5일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사망 이후 천안문 광장을 채웠던 대자보들 인해 문화대혁명의 실질적인 종막을 고했다는 점에서 문화대혁명의 끝 역시 대자보와 함께 했다고 하겠다

- 10) 문화대혁명 이후 복권한 덩샤오핑은 1979년 9월 ‘大鳴大放 大辯論 大字報’ 등 4대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폐지하고 대중적으로 활용되던 대자보 지역들(벽들)을 폐쇄했다.(이후 간헐적으로 대자보가 등장하거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자보가 불기도 하였지만,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로 그나마의 대자보 문화도 거의 사라지고 만다.

한다. 애초에 1980년 12월 존 레논(John Lennon)의 피격 사망 이후 그의 노랫말들을 적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한 데서 시작된 레논 벽은, 1988년에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었던 구스타우 후사크(Gustáv Husák)와 공산당 통치를 반대하던 이들에 의해 존 레논의 노랫말에 담긴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와 함께 민주화운동의 염원을 담은 글과 그래피티(Graffiti) 그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체코 민주화의 상징이자 성지가 되었다.

프라하의 레논 벽은 앞서 언급한 대자보처럼 민중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손쉽게 펼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주장과 비판적 논리들을 종이에 글로 써서 붙여둔 대자보와는 달리 매우 직관적이고 예술적인 그림과 노래가사를 벽에 직접 그려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나 사랑, 평화를 노래한 존 레논의 가사도 그렇지만, 스프레이나 파스텔 분필 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그려놓은 각양각색의 그래피티들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포크, 락, 힙합 등의 미국식 대중문화 속에 담긴 청년 하위문화와 자유주의 저항문화적 정동들이 벽이라는 매개를 통해 표출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다른 현상 방식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프라하의 레논 벽은 정보나 지식, 사상 등을 공유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유에 대한 느낌이나 희망, 염원의 연대감 같은 것을 공유하는 '공감장'¹¹⁾으로서의 성격



그림 1 1981년 프라하 레논 벽
(en.wikipedia.org/wiki/Lennon_Wall)



그림 2 2017년 프라하 레논 벽(구글맵스트리트뷰)

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레논 벽은 이후 26년이라는 시간적 거리와 지구 정반대편이라는 공간적 거리를 건너뛰어 2014년 홍콩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새롭게 재소환된다. 하지만 그 외관상 프라하의 레논 벽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과 양상을 지니고 있는 이 문화적 실천에 왜 ‘레논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 또한 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3. 정동적 미디어로서의 포스트잇과 홍콩 레논 벽

(1) 홍콩 레논 벽의 탄생과 발전

2014년 홍콩에서 최초의 레논 벽 현상은 우산혁명과 함께 나타났다. 2011년 뉴욕에서 있었던 ‘월스트리트 점령(Occupy Wall Street)’의 영향 하에서 시민 항명운동의 일환으로 홍콩섬의 중심가 ‘센트럴 점령(佔領中環; Occupy Central)’ 운동은 펼칠 것을 홍콩대학(香港大學) 법학과의 베니 타이(戴耀廷; Benny Tai Yiu-ting), 홍콩중문대학(香港中文大學) 사회학과 찬킨만(陳健民; Chan Kin-man), 개신교 목사 추유밍(朱耀明; Chu Yiu-ming) 등이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9월 26일부터 센트럴은 물론 그 근처에 있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총부(政府總部)가 위치한 애드머럴티역(金鐘站; Admiralty Station) 지역까지 센트럴 점령 운동에 동참한 120여만 명(주최 측 추산)의 시위대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이들은 평화 점령이라는 애초의 지침에 따라 각 지역에 이동식 민주교실(流動

11) ‘공감장’이라는 개념은 최근 국내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에서 『공감장이란 무엇인가』(길, 2017)를 출간하면서 제기한 개념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학계에서 공인되거나 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논의가 필요한 다소 시험적인 개념이라고 하겠다.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과 부르디외의 ‘장(field)’ 개념,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 그리고 마수미의 정동이론(affect theory) 등을 뒤섞어 놓은 듯한 개념에 가까워서 하나의 체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본고에서는 그 논쟁적인 측면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공론장’에 대비되는 ‘정동적 장’으로서의 함의만을 간취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民主教室)을 만들기도 하고 길거리 토론회 등을 조직하였으며, 또한 잘 보이는 곳에 각종 게시물과 현수막을 걸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8.31결정 철회를 요



그림 3 "Umbrella Man"
(www.bbc.com/news/world-asia-china-29648459?)



그림 4 2014년 10월 10일 홍콩 레논 벽
([zh.wikipedia.org/wiki/連儂牆_\(香港\)](http://zh.wikipedia.org/wiki/連儂牆_(香港)))

구하였다. 이후 이 점령운동은 경찰력과
공방 속에 홍콩섬과 구룡반도의
주요지역들에까지 확산되어 점령 및 시
위가 전개되면서 장기간의 우산혁명으로
발전되었다. 경찰의 강경진압과 그
에 맞서 시위가 폭력화 하면서 점차 평
화시위를 주장하는 온건파 지도부와 폭
력 시위를 주장하는 강경파 사이의 분
열과 홍콩정부의 여론몰이 등에서 수세
에 몰리게 되면서 결국 79일만에 종결
되고 말았지만, 우산혁명은 한계와 함
께 많은 성과와 유산을 남겼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논 벽이었다.

시위대 점령지역 가운데 가장 대표
적인 곳이 바로 정부청사가 있는 애드
머멀티 앞 하코트로드 (夏慤道;
Harcourt Road) 일대였는데, 시위대
는 벽에 정치적 구호의 현수막이나 선
전물만 붙인 것이 아니라, 점령한 거리
위에서 창의적인 설치미술이나 재치 있
는 만화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실
천들을 통해 홍콩 현실에 대한 시민들
의 비판의식을 반영하였다.¹²⁾ 그리고

12) 이처럼 홍콩 우산혁명 당시의 다양한 창의적 예술실천에 대해서는 BBC와 같은 서구 언론 미디어(<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29648459>? 참조)에서도 이미 주목하여 다룬 바 있으며, 장정아가 "영국의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의 관계자들이 창작

정부청사 입구의 벽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은 포스트잇으로 벽을 장식한 레논 벽이 등장하였는데 이 역시 일종의 집체적 행위에 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점령시위가 진행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10월 2일경부터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이 홍콩판 레논 벽은 벽에 직접 글을 쓰거나 그래피티를 그린 애초의 프라하 레논 벽과는 달리 포스트잇을 주로 활용한 것이었다. 외견상 이를 보고서 언뜻 프라하의 레논 벽을 떠올리기는 힘들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굳이 '레논 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레논 벽이 시작되는 부분에 걸려있던 'Lennon Wall Hong Kong / 連儂牆香港'이라는 현수막이나, 존 레논의 얼굴 그림과 함께 적혀있던 "But I'm not the only one"이라는 'Imagine'의 노래가사 전단은 레논 벽이 단순히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시위대의 의도적인 기획에서 비롯되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사실 '레논 벽'이라는 명명이 갖는 의미나 효과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선 존 레논이라는 이름과 프라하의 레논 벽을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운동의 함의를 그 속에 내포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존 레논이 영국 가수이면서 영미 팝문화 및 저항문화의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영국 내지는 미국 문화에 대한 동질감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홍콩인들의 기억 속에서 2014년은 존 레논이 비틀즈의 멤버로서 1964년 6월 홍콩을 처음 방문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점들은 역으로 '레논 벽' 현상 속에 식민통치의 본국인 영국에 대한 동질감이나 냉전시기 체코 민주화시위의 상징의 소환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로는 식민지시기와 냉전기의 잔재가 중첩적으로 의식/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홍콩 사회의 현실이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번역된 중국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連儂'은 레논의 대륙식 음차어인 '列儂'과 다른 광둥어식 음차어라는 점에서 일종의 홍콩 정체성을

자들과 접촉하여 수집해왔고, 국제 잡지 『GOOD』은 "좋은 도시 지표 2014" 1위로 홍콩을 꼽으며, 우산운동 기간 전 세계인들에게 준 영감을 이유로 들었다"(장정아, 앞의 글, 61쪽)고 한 바 있듯이, 정치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예술적 성취로도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담고 있기도 하고, 또한 글자를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실제 일상어 속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儂’은 인칭대명사로서 ‘나’ 혹은 ‘너’라는 의미를 지니고 ‘連’은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너와 나를 연결하다’라는 함의까지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 속에서 레논 벽은 1988년 프라하 민주화 물결의 정신을 단순히 되살리려 재소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상징물이 될 수 있었다. 더욱이 그 벽을 장식한 것 역시 프라하에서와 같은 그래피티가 아니라 포스트잇 위주로 바뀌기도 하였다.¹³⁾

2014년 당시 시위대나 동조하던 이들이 포스트잇 이외의 종이나 전단지 등에 글을 써서 벽에 붙인 곳들도 도처에 있기는 하였지만, 포스트잇을 위주로 일종의 집단적인 퍼포먼스처럼 구성하였던 레논 벽은 당시 운동의 명칭이기도 하였던 ‘우산’과 함께 새로운 시위문화를 보여준 상징으로서 사람들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애드머럴티의 레논 벽은 우산혁명이 종결을 고하기 직전인 12월 11일 경찰력에 의해 점령구가 철거되면서 함께 사라져버리긴 하였지만, 그곳에 붙어있던 포스트잇들은 이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시위대 참여자들에 의해 상당수가 자진 회수되어 보관되었으며, 그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촬영한 사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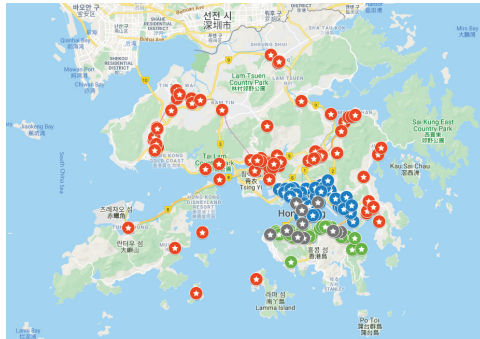


그림 5 구글맵에서 제공하는 레논 벽 지도
(Google Map, '香港連儂牆地圖', 9월2일 최후갱신)

13) 포스트잇을 시위와 같은 정치적인 운동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전시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한 퍼포먼스 등에 사용한 경우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이전에도 이미 있어왔으며, 특히 2011년 쿼리히에서 벌어졌던 'Occupy' 운동 당시에도 포스트잇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홍콩 레논 벽처럼 비교적 목적의식적인 퍼포먼스와 문화적 운동으로서 대규모로 전개된 경우는 거의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초의 문화적 실천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키피디어(영문)의 'post-it' 항목에서도 홍콩 레논 벽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점도 그런 역사적 의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을 통해 페이스북과 같은 SNS와 공유사이트들에 유포되면서 하나의 중요한 시위문화의 유산으로 남았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되면서 레논 벽 역시 다시 등장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애드머럴티의 정부청사 입구에만 레논 벽이 만들어졌었지만,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 기간 동안 가장 큰 규모로 형성된 타이포역(大埔墟站; Tai Po Market Station)의 레논 벽을 비롯해서 인구 유동이 많은 홍콩 주요지역의 지하철역이나 광장과 같은 거점들 곳곳에 레논 벽들이 설치되었다. 레논 벽은 이제 더 이상 애드머럴티의 정부청사 입구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place)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각 지역 커뮤니티에 뿌리내린 홍콩시민운동의 중요한 상징적인 문화적 행위 내지는 운동실천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림 6 2019년 타이포역 지하도의 레논 벽
(zh.wikipedia.org/wiki/連儂牆_(香港2019年))



그림 7 2019년 8월 9일 홍콩국제공항청사
바닥에 설치된 레논 벽
(zh.wikipedia.org/wiki/連儂牆_(香港2019年))

(2) 뉴(?)미디어로서의 포스트잇

앞서 언급한 중국 문화대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대자보가 긴 문장을 통해 정보나

주장을 전달하는 것에 비해 손바닥만한 정도 크기의 포스트잇이 전달할 수 있는 정보나 내용은 터무니없이 적을 수밖에 없다. 마오쩌둥도 “되도록 큰 글자로 쓰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듯이 말 그대로 큰 글자로 쓴 신문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大字報’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큰 종이에 큰 글씨로 쓰는 것이 특징이지만, 포스트잇은 큰 글씨로 쓰기도 쉽지 않고, 설사 한 장에 한 글자씩 쓴다 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쓰기라는 쉽지 않다. 반면에 내용을 보려면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하고, 그나마도 읽을 수 있는 내용도 짧은 술화나 생각 정도가 담긴 직관적인 명구나 시처럼 압축적인 내용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가지각색의 형광색으로 꾸며진 점묘화화도 같은 도상을 표현하거나 벽면 전체를 뒤덮은 카오스적인 미감의 모자이크 같은 이미지를 연출해내기도 한다.

그리고 대자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포스트잇은 또한 그래피티와도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래피티가 이미지 위주로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큼직하게 그리는 것이 대부분인 데 비해, 개별적인 포스트잇은 너무 작은 면으로 인해 그림을 그리기에는 쉽지 않고 짧은 글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멀리서 보기에 너무 작다. 물론 점묘화처럼 도상을 표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직접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그려낸 그림처럼 제대로 표현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래피티는 페인트나 스프레이 같은 도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물도 다소 번거롭고 그려 넣기도 쉽지 않은 반면, 포스트잇은 그저 펜과 포스트잇이라는 저렴한 간편한 도구만 있으면 간단히 작성해서 손쉽게 붙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그래피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새로 덧칠하지 않는 한 깨끗이 지우거나 없애기도 쉽지 않은 반면, 포스트잇 자체의 성질상¹⁴⁾ 바람이나 비에 저절로 떨어져 버릴 정도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제대로 펼쳐 내거나, 장기간에 걸쳐, 그리고 멀리서도 보이게끔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포스트잇이 어떻게

14) 잘 알려진 개발 비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스트잇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1968년 3M의 한 연구원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지만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잘 달라붙지 않고 쉽게 떨어지는 성질 때문에 10년 넘게 사장되어 있다가, 1979년에 와서야 잘 떨어진다든 특성 자체를 잘 살린 ‘post-it’이라는 이름의 메모지로 상품화되면서 널리 사용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포스트잇’은 인류에게 손쉽고 빠른 인스턴트식 메모 문화를 가져다 준 대표 상품이 되었다.

레논 벽의 매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정동적 공유라는 목적에 적합하면서도 가벼움과 유동성을 지닌, 일종의 새롭지 않으면서도 또한 새로운 아날로그적인 ‘뉴(?)미디어’로서의 포스트잇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사실 레논 벽에 붙여진 수많은 포스트잇들의 내용은 “홍콩인들 힘내라!(香港人,加油!)”, “홍콩을 지지한다(支持香港)”, “폭도는 없다, 폭정만 있을 뿐(沒有暴徒,只有暴政)” 등과 같이 짧은 감상과 염원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간혹 조금 긴 내용도 있기는



그림 8 레논 벽 위의 포스트잇들
(www.scmp.com/news/hong-kong/politics/article/3017943/police-riot-gear-descend-lennon-wall-protest-board-tai-po)

하지만, 사실 여기서 전달되어야 할 것은 인식적인 정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그리고 정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인 것이다. 마치 “But I’m not the only one”이라는 존 레논의 노래가사처럼 말이다. 비록 몇 글자를 적은 포스트잇 한 장을 붙이는 너무나도 간단한 행위이지만 이를 통해 동참하고 실천을 함께 했다는 동참의 느낌을 각각의 참여자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퍼포먼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벽을 가득 채운 무수히 많은 포스트잇들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만큼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멀리서 벽을 가득 채운 포스트잇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각적 주목도(attention)를 높이기 위한 형광색(특히 노란색)으로 가득 찬 벽면은 일종의 미술 작품과도 같이 직관적인, 혹은 전(前)의식적(pre-conscious)인 차원에서 강렬한 정동을 전달해준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빼곡히 채워진 육필로 흘려 쓴 격려와 공감의 짧은 문구들 역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마치 포스트잇 한 장 한 장이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창들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더욱이 일원적으로 일괄화되거나 동질

화되지 않는 카오스적인 비통일성과 다원성은 자유주의적 이미지 내지는 저항문화적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한다.

홍콩의 레논 벽 현상은 일반적인 시민이나 학생들의 손쉬운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수많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점에서 기존의 대자보나 그래피티와는 차별화된 정동적 매개로서의 포스트잇 의미를 잘 보여준다. 마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약한 바람에도 꺼질 것 같이 연약한 촛불이나 작은 노란리본이 시민운동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공감장 혹은 정동 공유의 매개가 되면서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역할을 레논 벽과 그 위를 장식한 포스트잇이 하고 있는 것이다.

(3) O2O 레논 벽과 정동정치 경험의 장

사실 요즘과 같이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정동적인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앱도 있고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 장비들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시위대는 왜 굳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포스트잇과 레논 벽을 시위의 문화적 실천행위로 선택했던 것일까? 미디어적 효율성이나 편의성, 전파 범위와 속도 등을 놓고 보면 레논 벽이 최신 뉴미디어를 따라잡기는 힘들겠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던 정동적 매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레논 벽만이 지니는 몇몇 특징들은 디지털 뉴미디어가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해 소위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감과 몸을 통해서만 감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아우라와 정동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선의 전경을 전유함으로써 도심 속 수직의 공간인 벽을 점령하고 그 공간과 함께 일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퍼포먼스는 단말기로 단절된 몸들 사이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정동적 교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곧 자연적인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든,

혹은 강제적인 철거에 의해서든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포스트잇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이를 온라인상에 올려두는 온라인 레논 벽들도 존재한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과 같이 홍콩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와 앱들을 이용한 온라인 레논 벽들¹⁵⁾이 있는데, 비록 현장감과 같은 직관적 정동은 전해주기 쉽지 않겠지만,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O2O (Online-to-Offline) 실천은 좀 더 광범위한 홍보, 특히 해외에 있는 화교사회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2019년도 송환법 반대시위 과정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O2O 레논 벽 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연대와 공감의 정동적 매개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동적 갈등과 경합의 장으로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송환법 반대시위에서 홍콩 정부와 중국의 대응방식이 기존의 경찰력을 동원한 관(官) 대 민(民) 사이의 대립에서 벗어나 견제파지지 세력을 동원한 민 대 민의 대립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들 사이의 충돌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¹⁶⁾ 온오프라인 상의 레논 벽을 둘러싸고서도 마찬가지로의 정동적 갈등과 경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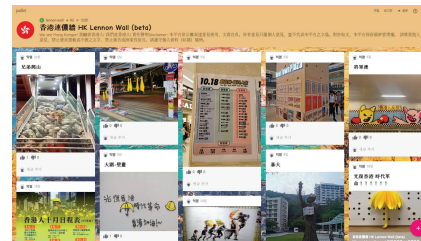


그림 9 최근 패들렛에 개설된 온라인 레논 벽
(padlet.com/lennonwall_hkhk/hk)

15) 페이스북 상의 '香港人的連儂牆', '香港連儂牆 Lennon Wall Hong Kong', 'Lennon Wall Hong Kong 連儂牆香港' 등의 여러 계정들,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공식 비공식적인 계정들, 패들렛의 香港連儂牆 HK Lennon Wall (beta) (https://padlet.com/lennonwall_hkhk/hk) 등과 같은 실험적 사이트들, 텔레그램의 레논 월 지도 프로젝트 (t.me/lennonwallmap)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온라인 레논 벽이나 관련 사이트들이 존재한다.

16) 최근 국제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송환법 반대시위대와 친중시위대 사이의 충돌에 관한 보도가 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는데, 7월 21일 위엔룽(元朗)역 지하철에서 흰 티셔츠를 입은 친중시위대의 송환법 반대 시위대에 대한 습격을 비롯해서, 송환법 반대시위대가 소위 '백색테러'라고 칭하는 민간인들에 의한 공격과 충돌이 보도되고 있다.



그림 10 9월 21일 왕타이신역(黃大仙站)에서 친중 시민들에 의해 진행된 ‘홍콩 청소 운동’ (<https://std.stheadline.com/instant/articles/detail/1096313/即時-香港-修例風波-何君堯現身屯門掃地-市民多區清理-連儼牆>)

로도 일부 몇몇 지역에서 견제파 지지세력이나 친중적인 시민들이 레논 벽을 철거하려다가 반중진영 시민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¹⁷⁾ 대대적인 시민 동원을 통한 철거 운동은 이때 처음 발의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9월 21일 ‘홍콩 청소 운동’ 당일 레논 벽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레논 벽을 설치한 송환법 반대시위 관련자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새로운 포스트잇들을 붙일 수 있도록 벽을 깨끗이 치워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할 정도로 크게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사진 등을 통해 이미 레논 벽의 기록들을 보존해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 이런 레논 벽이 결과로서의 포스트잇보다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붙이는 행위로서의 퍼포먼스와 실천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청소 이후 얼마 안 되어 이들 레논 벽이 있던 자리들은 새로운 다른 포스트잇들과 전단들로 금새 다시 채워졌고, 이런 공방 속에서도 ‘한 장을 떼면 열 장을 붙인다(拆一貼十)’라는 구호처럼 철거하면 할수록 새로운 레논 벽들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 레논 벽에서도 그런 갈등과 충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우선 홍콩 각 지역에 설치된 오프라인상의 레논 벽의 경우, 경찰력이나 공권력 집행단위에 의한 강제 철거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9월 19일 입법회의원(立法會議員) 호관유(何君堯: Junius Ho Kwan-yiu: 급진적인 견제파 의원 가운데 한 명)가 9월 21일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홍콩 청소 운동(清潔香港運動)’을 벌일 것을 발의하면서 민간인을 동원한 레논 벽 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전후

17) 7월 10일에는 야우통(油塘)역 레논 벽에서 철거하려는 시민들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8월 20일에는 청관오(將軍澳: Tseung Kwan O) 레논 벽 앞에서 여성들이 괴한에게 칼로 습격당하는 일 등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있다. 홍콩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는 중국 대륙에서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레논 벽에 비방 댓글을 다는 이들이 주로 홍콩의 친중적인 네티즌들이거나 해외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팔로우어 이외에도 비교적 댓글을 다는 것이 자유로운 인스타그램이나 여타 공개적 댓글이 가능한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친중적인 네티즌들의 비방과 비난의 댓글이 자주 올라오곤 한다.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我支持香港警察)”와 같이 비교적 안전한 댓글에서부터 “(포스트잇)은 네 조상님 묘 위에나 붙여라(貼到你祖宗的墳頭上哦)”와 같이 욕설과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악의적인 댓글에 이르기까지 각기 친중과 반중의 입장에 따라 온라인 댓글 상으로 격한 논쟁이나 비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상 송환법 반대운동의 주력 세대라 할 수 있는 홍콩의 청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의 경우 중국 대륙 내의 네티즌이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도 하고, 기본적인 알고리즘 상 팔로우어나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온라인 레논 벽을 사이에 둔 갈등이 광범위하거나 전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온라인 레논 벽은 오프라인 레논 벽에 대한 보존이나 홍보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나 의미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감과 정동적 공유의 매개로서의 의미를 지닌 레논 벽은 송환법 반대시위에 있어서 연대를 위한 중요한 정동정치적 실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과 지지하는 입장을 지닌 관 대 민, 혹은 민 대 민 사이의 정동적 갈등과 충돌의 장으로 비화되고 있기도 하다.

4. 결론

최근 시위대에 대한 총격 사건과 복면금지법 등으로 인해 홍콩 정부와 시위대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거기에 홍콩 정부와 견제파들에 의

해 민 대 민의 갈등이 조장되면서 홍콩 사회 전반적으로 증오와 분노의 정동이 횡행하고 있는 듯하다.¹⁸⁾

사실 기존에는 정치에 관한 문제를 주로 합리적 판단이나 가치관의 선택과 같은 인식론적 문제로 바라보고, 그 사이의 감정적 내지는 정동적인 문제들은 잘못된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예를 들자면 레드컴플렉스, 지역주의, 세대갈등 등과 같은)들과 그 선전 선동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조장된 것으로 다뤄지거나 배제되어야 할 무언가로 인식되어오곤 하였다. 감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을 없애고, 진실을 밝히고 바른 교육을 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홍콩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동아시아(혹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들(특히 청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강렬한 저항운동과 기득권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은 인식적 차원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동정치의 측면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극단적 대립들은 ‘사이버 발칸화(cyber-balkanization)’¹⁹⁾나 ‘확증 편향’²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식 이전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동정치라는 개념으로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18)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일반 시민들 역시도 장기간의 시위와 폭력적인 상황의 극단화, 그리고 상시적으로 겪게 되는 최루탄이나 방화, 대중교통서비스의 중단, 경제적 침체 등과 같은 일상 속의 불편과 피해로 인해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 대한 피로도가 점증하면서 시위대에 지지로부터 이반하거나 시위 중단과 타협을 바라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에릭 브리놀프슨(Eric Brynjolfsson)과 마셜 반 알스타인(Maschall Van Alstyne)이 1996년 제시한 이 개념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발칸반도의 극단적인 대립 상태를 빗댄 것으로, “자신들의 현재 선호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가려내는 능력을 가진 개인들은 가상 파벌을 형성하고 반대 견해들과는 스스로 절연하고, 자신들의 편견을 강화할지도 모른다. ... 그 효과는 ... 일반적인 사고가 극단으로 치닫는 급진화, ... 즉 발칸화이다. 그와 더불어, 서로 공유하는 경험 및 가치관의 상실은 민주주의 사회구조에 위협이 될 것이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세계의 알고리즘에 의해 일종의 편향적 극단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강준만, 「SNS·모바일·유튜브 시대의 언론」(『인물과사상』 251호, 2019), 47-48쪽)

20)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 역시 원래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식의 사고의 폐쇄적인 편향성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의 정동정치도 있지만, 가진 것 없는 이들이 권력이나 주류사회에 맞서 다양한 매개와 실천들을 통해 작동시키는 저항의 정동정치 또한 있는 것이다. 진리나 거짓, 혹은 선과 악 사이의 논리적 혹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에 앞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저항의 정동정치를 통해 커다란 정치적 힘과 물결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한국에서의 촛불이나 노란리본과 같은 것들은 물론 홍콩의 레논 벽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2016년 구의역 사고 현장 포스트잇들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7500028)
0160607500028)

그리고 포스트잇과 이를 활용한 레논 벽이 홍콩 시위에서 중요한 시위문화의 상징이 되었듯이, 최근 국내에서도 포스트잇이 종종 시위나 추모의 작은 실천행위로서 활용되면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젊은 여성이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과 5월 28일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던 수리용역업체 직원의 사망 사건의 현장이 이를 추모하는 이들이 붙여놓은 포스트잇들로 가득 채워지기도 하였다.

합리적인 논의나 논쟁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장 역할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너와 내가 연결되어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공감장의 통로이자 정동적 공유의 매개가 되고 있는 홍콩 레논 벽과 포스트잇을 붙이는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저항적 정동정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떨어질 듯 말 듯 바람에 흔들리는 포스트잇은 언뜻 김수영의 시 '풀'을 연상시킨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參考文獻〉

- 강준만, 「SNS·모바일·유튜브 시대의 언론」, 『인물과사상』 251호, 2019.
- 김왕배, 「언어, 감정, 집합행동 -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017.
- 마수미, 브라이언, 조성훈, 『정동정치』, 갈무리, 2018.
- 백원담, 「인터 코리아, 인터 차이나, 인터 아시아」, 『황해문화』, 2019.
- 손주환, 「문화대혁명의 기수 중공 '대자보」, 『북한』 Vol.149, 1984.
- 이수근, 「대자보를 통해서 본 북경의 표정」, 『북한』 Vol.86, 1979.
- 장정아, 「이 폐허를 응시하라」, 『황해문화』, 2016.
-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길, 2017.
- 하병학, 강미영, 「수사학적 공간, 구의역 추모 포스트잇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수사학』 28호, 2017.
-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고’ 김군 사고 지점 작업 이유 뒤늦게 파악해’ 『서울신문』 2016년 6월 7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7500028>)
- 위키피디아(중문) (<https://zh.wikipedia.org>)
- Wikipedia (<https://www.wikipedia.org>)
- SCMP (<https://www.scmp.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
- 트위터 (<https://www.twitter.com>)

〈Abstract〉

Hong Kong Lennon Wall, Post-it, and Politics of Affect:
Focused on Umbrella Movement and Anti-Extradition Law Amendment Bill Movement

Yun, Young-Do

The 2019 ‘Anti-Extradition Law Amendment Bill (Anti-ELAB) Movement’, which is also called Hong Kong protests against Extradition Bill, is an ongoing series of demonstrations in Hong Kong which began with the aim to oppose the introduction of the Fugitive Offenders amendment bill proposed by the Hong Kong government. For half a year from March 31, when was initiated in Hong Kong,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al practices that has emerged uniquely in the protest is the citizen’s bulletin board movement, decorated with a post-it, called the Lennon Wall.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the various forms of politics of affect in other regions, at first, I discuss what the Lennon wall is, how it emerged in the recent Hong Kong protests, and what its characteristics are. Next, I examine the roles as a medium 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cultural practices in terms of politics of affect.

The intense resistance movements and political conflicts that are taking place not only in Hong Kong, but also recently in each countries of East Asia (and all over the world), are driven by the politics of affect before the cognitive phases. These phenomena raise the need for new attention on the politics of affect. Behind these movements is the resistant politics of affect by the people who have nothing to operate through various media and practices against power or mainstream society. The politics of affect of resistance that works in our daily lives can sometimes generate great political waves and changes, such as candles protests and yellow ribbons practices in Korea, as well as Lennon walls in Hong Kong.

Key words: Hong Kong, Umbrella Movement, Anti-Extradition Law Amendment

Bill (Anti-ELAB) Movement, Lennon Wall, Politics of Affect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6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11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